

오곡백과가 풍성한 나주의 바이엘 대리점

신정가축약품

취재 홍보실 김익겸



나 주 지방에 흥년이 들면 온 전라남도에 흥년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곳 농사는 전라남도 지방의 그 해 농사를 가늠하는 잣대 구실을 한다. 이 정도로 나주는 하늘로부터 기름지고 너른 들판을 받은 복스런 곳이며, 역사속에서도 영화로움을 많이 누렸던 곳이다. 고려의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때에 그 기반을 이곳에서 닦았던 것이 인연이 되어 그전에는 군에 지나지 않았던 이 지방의 지위가 뒤에는 전국에 여덟 군데 밖에 없었던 목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니 하는 말이다. 그 뒤로 전라남도의 관찰부를 광주 지방으로 옮겨갈 때까지 구백년에 가까운 세월을 걸쳐 나주 지방은 줄곧 전라북도의 전주에 버금가는 큰 고을 행세를 해왔다. 이것은 전라도라는 이름이 전주와 나주를 합친 말에서 나온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고 또 나주목 밑에 두 개의 군과 여덟 개의 현을 두었던 사실에서도 쉽게 짐작된다.

또한 이 지방은 다른 농사 못지 않게 과일농사가 성하여 배, 복숭아, 포도, 사과같은 과일이 전라남도 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데 그 중에서도 배의 생산량은 도내 생산량의 3분의 2를 넘고 있다. 나주배가 유명한 까닭은 그 크기가 크고 맛이 일품으로, 살이 연하며 달고 물이 많은 금춘주에 드는 '아리랑 배'로 다른 종류의 배가 도저히 그 맛을 따르지 못한다고 한다. 이렇듯 오곡백과가 풍성한 전라남도 나주의 바이엘 대리점 신정가축약품을 찾았다.

신정가축약품은 1960년대 초기 바이엘 대리점의 창단 멤버로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라남도 나주 일대의 축산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단단히 해오고 있다.

1998년 1월 신정가축약품을 인수한 김영식 대표는 전남대 낙농학과를 졸업한 후 제일사료를 거쳐 신정가축약품에서만 10여 년을 근무하였다. 이후 천하제일사료 대리점을 4년여 운영하는 등 축산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





1. 전남 나주의 바이엘대리점 **신정가족약품**
주소: 전남 나주시 죽림동 138-44
전화: 061)332-6458, 334-3505
팩스: 061)337-4680

2. 신정가족약품의 **바이엘맨들**
바이엘 지구부장 윤진규님, 김용섭 이사,
홍옥순 사모, 김영식 사장, 차정태 원장,
남정원 부장, 바이엘 지역담당 강동한
수의사



3. **친환경농원**
백삼단 시장이 운영하는 전자동 무장 계사로
신란계 50,000수 규모의 HACCP
인증농장이며 전남 인근지역에서는 품질,
성적 우수농장으로 꼽히고있다.
전화 : 011-9612-8554
주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824-54



4. **나주배**가 국내외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게 된 것은 1929년 개최된
조선박람회 에 나주배를 출품하여 동상
수상이 계기가 되었다. 1967년 대만수출부터
최근에는 전세계 각지로 수출하게 되었다.

5. **동점문(東新門)**은 1910년대까지 남아
있었지만 일제 강점기에 신작로를 내면서
훼손, 2002년에 발굴을 시작하여
복원되었다.

테랑이다.

차분하면서도 적극적인 김영식 대표는 “최근 들어 지역적인 문제와 여러가지 사유로 양축가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직원 숫자도 그만큼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정가족의 슬로건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양축가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개업 이래 정직하고 올곧은 마음으로 양축가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은 편하게 서로를 찾고 있습니다. 빠르고 체계적이며 최신 사양관리와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기본 아닌가요?” 세계 경기 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1차 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지역 축산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신정가족약품이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